

우산도는 독도입니다

조선시대의 고지도에는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을 그려 넣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두 섬은 물론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초기에는 우산도 위치가 울릉도의 서쪽이나 북쪽, 남쪽에 그려진 지도들이 있습니다만, 지도에 표현된 우산도는 독도가 확실합니다. 조선시대의 울릉도-우산도에 관한 지리 정보, 지리지 등의 문헌에 의하면 우산도가 독도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정확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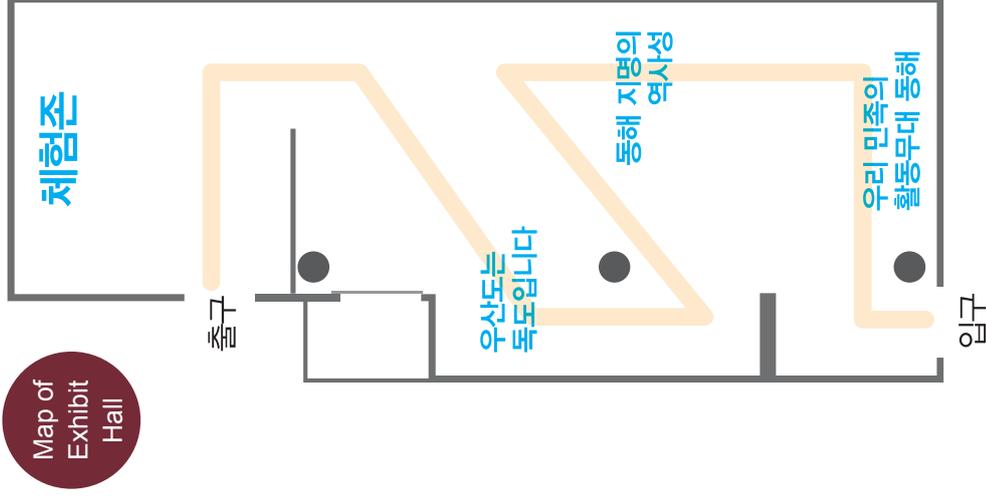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지다

이익의 『성호사설』 등에 기록된 안동부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를 적은 크기로 그렸다.

「동국대지도」

미상, 18세기 중엽, 272.7x137.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19년 찾아가는독도전시회 동해·독도 지도展



독도체험관
Dokdo Museum Seoul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 <독도체험관>

문의: 02-2012-6100~6101

동해 지명의 역사성과 애국가

우리나라에서 「동해」지명이 표기되어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고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평도총도(1530)입니다. 이후 조선 후기에 제작된 조선전도, 지방지도, 관방 지도, 만국전도(세계지도) 등 다양한 지도에 「동해」가 나타납니다. 문호 개방에 따라 외래지명 「일본해」가 유입되자, 우리는 지리교과서와 지도에 일본해 대신 「동해」, 「대한해」, 「조선해」 등의 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무렵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동해」 지명은 일본에 의해 지도 상에서 사라졌지만, 해방 이후 되살아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국총도(我國總圖)」

한국, 작자 미상, 18세기 후반, 81.5x151.0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지도집 「여지도」에 수록된 채색도, 정상기의 「동국지도」(18세기 중엽) 계통의 지도다. 바다 명칭으로 동해(東海), 서해(西海), 남해(南海)를 각각 표기했다.

2019년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

동해·독도 지도展

2019년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동해·독도 지도展 개막식에 초대합니다.

2019년 독도교육주간을 맞이하여 '동해·독도 지도展'을 개최합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부가 주최하고 우리 재단이 주관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동해와 독도를 다양한 기록과 지도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3.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 특별전시회

동해·독도 지도展

2019.3.28.~4.14.

국립세종도서관



관람

안내

▶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화-금 9:00~21:00

토-일 9:00~18:00

(VR 체험은 18:00까지입니다.)

▶ 관람료 무료

오시는 길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다솜3로 48

문의: 02.2012.6100

2019년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 특별전시회

동해·독도 지도展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IAHISTORYFOUNDATION